

# “나주 농특산물 최고” 윤병태 시장 ‘수도권 발품’

### 서울 서초구청장 면담...농산물 유통 등 업무 교류 협약 제안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 ‘우수 농특산물 판촉행사’ 현장 방문

나주시가 나주배, 나주쌀 등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직접 수도권을 찾아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타 도시와의 상호교류에 나서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21일 농산물 유통 등 상호 교류를 위한 서울시 서초구청 방문에 이어 농협하나로마트 경기 성남점에서 열린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및 판촉 행사’ 현장을 찾았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과 만난 윤 시장은 마한과 전라도 중심지였던 나주의 역사,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에 따른 도시 비전, 전통 산업인 농업의 우수성 등을 소개하며 양 도시 간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윤 시장은 환담을 통해 역사문화, 에너지산업, 농업이 살아 숨 쉬는 나주를 접한다면 분명 나주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양 도시의 상생을 위한 업무 교류, 농산물 유통 등 적극적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을 제안했다.

이에 전 구청장은 “서초구는 자매-우호 도시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도시와 농촌이 동반 상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전라도의 중심 나주와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윤 시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면담을 마친 윤 시장은 경기도권 최대 농산물 유통업체인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으로 이동해 나주쌀·나주배 등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윤 시장과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권용대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장과 동강·남평·다시마한농협 조합장, 이기석 재경나주향우회장, 노상봉 재경성남향우회장, 최진원 현우농원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나주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도왔다.

또 성남시의회 박은미 부의장, 최중성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



지난 21일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열린 ‘나주시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및 판촉행사’에서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소비자들에게 햅쌀(1kg) 무료 증정 등 판촉 홍보 활동을 벌였다. <나주시 제공>

냈다.

시는 올해 수확한 햅쌀(1kg) 무료 증정과 나주배, 나주배즙 시식 등 행사장을 오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판촉 행사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또 올해 대미 수출 물고를 틈 ‘왕건이 탐낸쌀’을 비롯한 고품질 나주쌀과 친환경 나주배의 맛·효능 등을 전시 홍보하며 나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나주=손영철 기자 yjson@kwangju.co.kr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름진 나주평야와 영산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길러낸 고품질 나주쌀과 친환경 농법의 고당도 나주배를 비롯한 나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해주시고 2000년 역사문화도시 나주도 방문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현장 중심의 농산물 판촉, 판로 확보에 발품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임신부 가사 돌봄’ 추진 나주시 내년 1월부터

나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나주시는 출산 이후로 집중돼 왔던 정책을 보완, 임신 전·출산 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출산율 향상 도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가 가사 노동 해소를 위한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를 자체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

가정 내 가사 돌봄 인력을 파견해 청소·설거지·세탁·정리정돈 등 가사 서비스를 1일 3시간, 총 5회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전 5개월에서 출산 예정일까지 고위험군, 다태아, 둘째아 이상, 장애인 등 임신부다.

또 시는 임신부의 돌봄 서비스 신청 시 모바일 웹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지난 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웹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나주시 보건소는 민선 8기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는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거주 기간 조건 없는 출산 장려금(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부터 300만원)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 16일 폐막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4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장성군 제공>

# 장성 가을꽃·야경 ‘1000만 관광’ 신호탄 쐈다

### 황룡강 꽃축제 43만명 방문...5억5000만원 주민소득 창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43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5억 5000만원의 주민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막을 내린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백일홍과 천일홍, 코스모스, 핑크플리 등 다채로운 가을꽃의 향연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꽃길 중간중간에 조성된 꽃향기정원, 장성가를 정원, 이야기꽃정원도 수준 높은 조경으로 호평을 얻었다. 문화대교-서삼교 인근에는 핑크플리와 팜파스가 풍성하게 자리잡아 이국적인 색채를 보였다.

특히 아름다운 밤 풍경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하이라이트였다. 플라워터널 인근에 ‘빛의 게이트’, ‘축령의 사계’, ‘미르의 서재’, ‘웨이크 게

이트’, 공원 입구에 조성된 ‘빛의 게이트’는 레이저와 광섬유, LED 등 조명으로 꾸며져 환상적인 색감을 뽐냈다.

‘축령의 사계’는 국내 최대 규모 편백 조림지로 유명한 축령산의 사계를 아름다운 조명으로 연출했다. ‘미르의 서재’는 장성의 풍경을 책 모형물 속 영상상으로 담아 독특한 감흥을 전한다. ‘웨이크 게이트’는 홀로그램과 레이저로 디자인 된 화려한 매력을 뽐낸다.

황룡강 야경을 감상하러 온 사람들 사이에선 밤 10시까지 운영된 황룡강폭포 야간 조명, 안개분수와 물 위를 동동 떠가는 달 모양 문(moon) 보트도 인기를 끌었다.

매일 저녁 펼쳐진 ‘달빛 콘서트’와 향토식당, 간담먹거리, 푸드코트에서 제공하는 풍성한 먹거리

도 인기였다. 장성군은 축제장 한 가운데 천막을 설치하고 수백 개의 테이블을 놓는 ‘공공식당’을 운영했다. 음식과 공연, 축제를 한 자리에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좋은 콘텐츠는 지역 소득 창출로 이어졌다. 장성군의 집계 따르면 축제기간 동안 향토식당은 4억 1000만 원, 간담먹거리 부스 8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63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총 5억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축제를 통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3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성공을 거둔 것은 치질 없이 추진하고 성실하게 운영해 주신 참여 군민과 공직자들 덕분”이라며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을 소상히 파악해 다음 해에는 더욱 즐겁고 아름다운 가을꽃축제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약자지결 강진읍시장, 사은품 덤이요”

### 군, 내달 경품 행사 등 연말까지 이벤트

강진군이 다양한 사은 행사를 통해 강진읍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 강진읍시장 종합동 주 무대에서 강진읍시장 활성화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갈비와 소고기, 과일세트, 생선 등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각설이 공연 등 볼거리가 마련된다.

또 오는 11월 25일에는 소상공인 시기 진작을 위한 ‘강진읍시장 상인의 날’ 행사를 열어 초대가수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5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

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연말까지 확대 운영해 고객과 상인과의 경제 선순환을 이룰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시장 상인이 힘을 얻어야 지역경제가 힘을 얻는다”며 “이런 경품 행사가 불쏘시개가 되어 전통시장 고객 유치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행사 기간 중 쾌적한 환경으로 고객과 상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산동 건물 방수공사, 주차장 철골 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직접 재배한 고구마로 나눔행사 담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진호)은 최근 담양군복지재단에 직접 수확한 고구마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도 수확한 고구마는 조합 직원들이 양묘장 유후부지에 직접 기른 고구마로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담양군산림조합은 2014년부터 매년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명절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이웃사랑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 장흥군, 문화재 보수정비 속도낸다

### 국·도비 25억 확보...보림사 등 관광자원 활성화 나서

장흥군이 내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예산 25억 원을 확보해 문화관광자원 활성화에 나서게 됐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2023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국·도비 예산으로 25억 원(국비 21억원·도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3억원이 늘어난 예산 규모다.

장흥군은 2023년 총 30억 6000만원을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천관사 선원재현 건축공사 및 석축공사 26억원 ▲보림사 가지선원 및 선단원 보수로 3억 7000만원 ▲존재고택 산책로 정비 및 초가이영잇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등 6건 9000만원 등이다.

장흥 천관사 선원재현 건축공사의 경우 2014년 천관사 원형고증 및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 설계용역을 마쳤다.

2023년에는 선원재현을 건립해 문화재 보존정



보림사 비 및 전통 불교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이외에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문화재 재해 긴급보수 사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과 보수 정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담양군, 창평 ‘창흥학당’ 준공...주민 복합문화공간 역할 기대

### 공예·인문학강좌·악기교실·요가교실 등 다채

담양군 창평면에 ‘창흥학당’이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창흥학당 준공식을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와 이규현 전남도의원, 최용호·최현동 군의원, 주민자치회장 및 지역사회단체장, 창평초등학교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준공식은 창흥학당 명칭선정에 대한 축문낭독과 기념축사, 기념식수 식재 및 시설 안내 순으로 채워졌다.

창흥학당은 2019년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생

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지상 1층 2개동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성됐다.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공예, 인문학강좌, 악기교실, 요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창흥학당’이라는 명칭은 창평초등학교의 전신



으로 근대 교육의 발상지인 창흥의숙에서 의미를 가져와 우리 군이 추구하는 인문학도시로서 사람과 자연, 교육이 어우러지는 이미지를 담았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